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9권 제4호, 2013년 12월
Korean J Women Health Nurs Vol. 19 No. 4, 254-264, December, 2013
pISSN 2287-1640 | eISSN 2093-7695
http://dx.doi.org/10.4069/kjwhn.2013.19.4.254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

하주영 · 김윤지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in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Ha, Ju Young · Kim, Yoon Ji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Methods:** Participants included 127 married immigrant women who met eligibility criteria and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Participants were evaluated for subjective assessment of married immigrant-related constructs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 for depression, acculturation stress, and social support. The analysis was done using SPSS for Windows, version 18.0, and included stepwise regression. **Result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Depression significantly differed according to native country,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education, family monthly income, household and primary support. 2)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marital life satisfaction (r=-.80, p<.001), acculturative stress (r=.78, p<.001), and social support (r=-.20, p=.025). 3) Marital life satisfaction, family monthly income, acculturative stress, primary support and social support were significant factors, which explained 84.6% of the variance in depression (F=138.04, p<.001).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a powerful predictor of depression for married immigrant women was marital life satisfaction. **Conclusion:** Based upon the findings, this study provides useful information that could assist in reducing depression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and indicates that nursing interventions are needed.

Key Words: Immigrants, Depression, Stress, Social support, Acculturation, Marriage, Personal satisfaction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사회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9년을 기점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100만 명을 넘어섰고, 특히 결혼이민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89.7%로 높아 앞으로 이주여성의 출산과 양육은 우리사회의 질적·양적 발전에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여겨진다(Statistics Korea, 2011).

이민은 일반적으로 타 문화권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회경제적 상태, 단기간에 직업, 사회적 지위, 언어, 가족구조와 기능 등의 생활전반의 변화를 유발한다(Kim, Han, Shin, Kim, & Lee, 2005). 그러나 결혼중매업체를 통해 한국에 오는 이민여성의 경우 결혼 후 입국까지 걸린 기간은 4~5개월(Lee, Park, Kim, & Kim, 2007)로 매우 짧다. 따라서 결혼 당시 한국사회나 남편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없거나 왜곡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입국과 동시에 남편과 그 주변 환경에 대해 자신의 기대치와 다른 현저한 차이로 인해 많은 충격을 경험한다(Yang et al., 2012). 또한 이주로 인하여

주요어: 이주, 우울, 문화,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Corresponding author: Kim, Yoon Ji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49 Busandaehak-ro, Mulgeum-eup, Yangsan 626-870, Korea.
Tel: +82-10-6369-1812, Fax: +82-51-510-8308, E-mail: gadget-@hanmail.net

투고일: 2013년 9월 25일 / 수정일: 2013년 12월 11일 /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12일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 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결혼이주여성들이 본국에서 누리던 가족이나 친밀한 사회적 지지망의 상실과 이주사회 적응에 필요한 사회적 지지 체계의 취약성이 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Kim, 2011). 특히 여성의 경우 새로운 사회 구성원과 접촉할 시간이 적고 집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보니 언어능력 부족으로 인해 남성보다 문화적응이 어렵고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8; Oh & Park, 2007).

결혼이주여성들은 국적과 상관없이 결혼이민이라는 새로운 문화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Kim, 2011), 이들이 경험하는 갈등과 어려움은 결국 정신건강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Yang & Kim, 2007),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신건강수준은 일반기혼여성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2006).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정신건강관리가 중요한데, 특히 우울과 같은 증상은 적기에 관리하지 못해 임신 중에 우울증상이 지속된다면 이는 부적절한 산전관리, 영양결핍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차원의 건강문제가 아니라 임신, 출산, 자녀양육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2세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Lee, 2009).

Fenta, Hyman과 Noh (2004)는 이주민의 우울은 연령, 이민 동기, 생활 스트레스 사건, 교육 수준, 취업상태,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 등이 관련 변수라고 하였는데, Mui와 Kang (2006)은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Yang 등(2009)의 연구에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결혼이주여성과 같은 이민자들이 경험하는 우울은 단순히 적응상의 문제로 생긴 결과라기보다 적응과정에서 유발된 스트레스와 이에 대응하는 개인내적 자원 및 외적 지지와의 관계 속에서 조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울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이민국에서의 자신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Huang & Mathers, 2008)와 함께 고려하여 우울에 대한 완충효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결혼기간에 따라 우울정도의 차이를 보였는데, 우울 정도가 가장 높은 결혼기간은 1년 미만(Yang et al., 2009), 3년 미만(Kim, 2010) 또는 2~5년 사이(Yang & Kim, 2007)로 나타났다. 이는 대체로 한국생활 초기 적응기로 볼 수 있는 결혼기간 3년 미만(Thanh, 2005)에서 우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이후 결혼생활 및 자녀 양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생활의 초기 적응기라고 볼 수 있는 결혼 3년 미만의 이주여성의 우울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며,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정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주여성들의 우울예방 및 이민초기에 보다 건강하게 한국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울 수 있는 중재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이주와 결혼생활 관련 특성,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우울 정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우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우울 정도를 파악하고,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상관관계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한국인 남성과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지 3년 이하인 결혼이주여성 중 부산, 경남 지역에 거주중인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하고 각 국가의 언어로 제작된 설문지를 읽고 답할 수 있는 여성을 편의 추출하였다.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3.1.2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 예측 요인의 수가 5개일 경우 유의 수준 .05, 효과크기 중간(.15), 검정력 .90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표본수는 116명으로 계산되었다. 130명의 자료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4부를 제외한 총 12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이주와 결혼 생활 관련 특성

이주와 결혼 관련 특성은 Seol (2005)의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이주여성의 한국어 실력: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영역을 '매우 서툴다' 1점에서 '매우 능숙하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 남편의 아내 나라 언어 실력: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영역을 '매우 서툴다' 1점에서 '매우 능숙하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 결혼생활 만족도: '현재 귀하의 전반적인 결혼생활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불만이다' 1점에서 '매우 만족한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2) 우울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우울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adloff (1977)가 개발한 도구를 Chun, Choi와 Yang (2001)이 수정 · 보완하여 개발한 20문항의 한국판 CES-D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우울 정서(7문항), 긍정적 정서(4문항), 신체적 저하(7문항), 대인관계(2문항) 등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형식의 4점 척도로 우울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대상자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 '극히 드물게(1일 이하)' 0점, '가끔(1~2일)' 1점, '자주(3~4일)' 2점, '거의 대부분(5~7일)' 3점에 응답을 하였다. 긍정적 문항(4, 8, 12, 16)은 역으로 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16점 이상을 가능 우울증(possible depression), 21점 이상을 추정 우울증(probable depression), 25점 이상을 확정적 우울증(definite depression)으로 간주하였다(Lee et al., 2008).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5, Chun 등(200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84였다.

3)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 접하면서 적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Sandhu와 Asrabadi (1994)가 개발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ASSIS)를 Kweon (2009)이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수정 ·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차별(6문항), 향수/부적응(10문항), 불안(4문항), 후회(4문항), 분노(4문항), 자녀 염려(2문항)의 6개 영역의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최저 30점에서 최고 15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6이었고, Kweon (200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80이었다.

4)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Park (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Kim (2007)이 재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재수정된 사회적 지지 척도는 사회적 지지망의 기능적 속정인 지지제공자, 지지내용, 만족도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각 지지제공자에 대한 지지형태는 정서적, 물질적, 평가적, 정보적 지지로 구분되며 총 2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많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4였고, Kim (200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9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93이었다.

4. IRB 승인과 자료수집

연구 진행을 위하여 기관윤리 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친 후(05-2012-092) 2013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이주여성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보건소 및 종교단체 등을 방문하여 기관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자료수집 허락을 받은 후 해당기관을 방문하는 결혼이주여성을 소개 받았다. 연구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의 위험과 보상, 연구의 익명성 및 연구대상자가 자율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연구참여와 중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설명 듣고,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가 응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보건소의 협조로 대상자의 출신국가 언어에 능통한 자원봉사자가 설문지 내용을 읽어주는 방식으로 설문지 작성을 도왔으며, 설문이 끝난

후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증은 Scheffé 방법을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이주와 결혼생활 관련 특성, 우울,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이들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이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5.48±1.67세였으며 배우자의 평균연령은 39.22±2.07세로 평균적인 남편과의 나이 차이는 13.64세이었다. 출신 국가는 베트남 50명(39.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 37명(29.4%), 필리핀 32명(25.4%)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로는 몽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이 있었다. 종교는 불교가 41명(32.5%)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수준은 본인 및 배우자에서 고졸이 각각 87명(69.0%), 80명(63.5%)으로 가장 많았다. 배우자의 직업은 사무직이 106명(84.1%)으로 많았고,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이 없다가 108명(85.7%)로 대부분 전업주부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입은 200~300만원 미만이 69명(54.8%)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기간으로는 13개월~24개월이 66명(52.4%)으로 가장 많았다.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으로 '시부모와 부부가 함께 산다'가 46명(36.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산다'35명(27.8%)이었으며 남편과 대화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는 한국어가 109명(86.5%)로 가장 많았다. 결혼 후 한국생활적응에 도움을 준 사람이나 단체로는 남편이 93명(73.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모국인 결혼이주여성 친구 11명(8.7%), 종교단체 8명(6.3%)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출신국가(F=2.80, p=.042), 거주기간(F=5.10, p=.007), 종교(F=4.31, p=.003), 학력(F=3.76, p=.026), 월평균수입(F=57.91, p<.001), 동거인(F=3.54, p=.017), 결혼 후 한국생활적응에 도움을 준 사람이나 단체(F=3.16,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이주와 결혼생활 관련 특성,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우울 정도

대상자의 이주와 결혼생활 관련 특성,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결혼생활만족도 및 우울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한국어 실력은 5점 만점에 평균 2.63±0.67점이었고 남편의 부인나라의 언어실력은 1.79점으로 서툴다고 나타났다. 결혼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97점으로 '보통'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150점 만점에 평균 89.45±5.11점이었으며, 사회적 지지는 125점 만점에 평균 82.39±10.24점이었으며, 영역별로 살펴보면 물질적 지지 17.50점 정서적 지지 23.13점, 정보적 지지 19.64점, 평가적 지지 23.74점이었다. 우울은 60점 만점에 평균 18.89±5.66점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증상 점수를 절단점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 가능 우울증은 31명(24.6%), 추정 우울증은 25명(19.8%), 확정적 우울증은 16명(12.7%)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우울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우울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우울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r=.78, p<.001),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r=-.20, p=.025) 우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대상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에 앞서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Durbin-Watson값은 2.12로 기준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Table 1. Differences in Depress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Factors (*N*=12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Depression M±SD	t or F (*p*) Post-Hoc
Age (year)		25.48±1.67		
Age of husband (year)		39.22±2.07		
Age gap with husband (year)		13.64±2.72		
Marriage period (month)	0~≤12[a]	38 (30.2)	20.71±6.08	5.10 (.007)
	>12~≤24[b]	66 (52.4)	17.15±4.98	a>b†
	>24~≤36[c]	22 (17.5)	18.09±5.86	
Native country	Vietnam	50 (39.7)	19.48±6.32	2.80 (.042)
	Philippines	32 (25.4)	19.38±6.02	
	China	37 (29.4)	16.46±4.14	
	Others	7 (5.6)	16.29±2.87	
Religion	Christian[a]	37 (29.4)	15.76±3.70	4.31 (.003)
	Catholic[b]	4 (3.2)	22.75±1.50	d>a†
	Buddhism[c]	41 (32.5)	19.05±5.55	
	None[d]	34 (27.0)	20.35±6.72	
	Others[e]	10 (7.9)	17.00±5.63	
Education	≤Middle school[a]	19 (15.1)	21.53±6.72	3.76 (.026)
	High school[b]	87 (69.0)	17.99±5.42	a>b†
	≥College[c]	20 (15.9)	17.15±4.38	
Education of husband	High school	80 (63.5)	18.40±5.53	0.03 (.977)
	≥College	46 (36.5)	18.37±5.94	
Job	Yes	18 (14.3)	18.56±5.51	0.13 (.898)
	No	42 (33.3)	18.37±5.76	
Job of husband	Office	106 (84.1)	18.93±6.10	0.76 (.515)
	Labor	36 (28.6)	18.97±6.09	
	Own business	44 (34.9)	17.34±4.92	
	others	4 (3.2)	19.00±4.76	
Family monthly income (10,000 won)	<100[a]	8 (6.3)	29.75±3.37	57.91 (<.001)
	≥100~<200[b]	42 (33.3)	21.98±4.76	a>b>c, d†
	≥200~<300[c]	69 (54.8)	15.36±3.03	
	≥300[d]	7 (5.6)	13.71±1.79	
Household	Husband[a]	20 (15.9)	19.35±4.03	3.54 (.017)
	Husband+parents-in law[b]	46 (36.5)	19.91±6.54	b>d†
	Husband+children[c]	35 (27.8)	16.03±4.16	
	Husband+parents-in law+ children[d]	25 (19.8)	18.12±5.99	
Language‡	Korean	109 (86.5)	18.20±5.55	1.40 (.248)
	English	11 (8.7)	18.18±6.60	
	Native language	6 (4.8)	22.17±5.49	
Primary support	Husband[a]	93 (73.8)	18.01±5.10	3.16 (<.001)
	Mother and father in law[b]	5 (4.0)	20.20±5.21	e>a, d†
	Friends of host country[c]	11 (8.7)	18.27±4.56	
	Religious community[d]	8 (6.3)	15.50±4.44	
	Community social service center for immigrant women[e]	9 (7.1)	24.00±9.87	

† Scheffé test; ‡ Language used for chatting with husband.

Table 2. Levels of Depression and related Variables (*N*=126)

Characteristics	n (%)	Min.	Max.	M±SD
Korean language ability of immigrant women		1	5	2.63±0.67
Ability of husband in language of the wife's country		1	5	1.79±0.67
Marital satisfaction		1	5	2.97±0.93
Acculturation stress		73	105	89.45±5.11
Social support		64	102	82.39±10.24
Physical support		13	22	17.50±2.44
Emotional support		16	29	23.13±3.01
Information support		14	25	19.64±2.92
Appraisal support		14	31	23.74±4.51
Depression		12	36	18.89±5.66
Normal	54 (42.9)	12	15	13.52±1.02
Possible depression	31 (24.6)	16	20	17.55±1.50
Probable depression	25 (19.8)	21	24	22.77±1.15
Definite depression	16 (12.7)	25	36	28.53±3.20

Table 3. Relationships among Study Variables (*N*=126)

Variables	Depression	Acculturation stress
	r (*p*)	r (*p*)
Acculturation stress	.78 (<.001)	
Social support	-.20 (.025)	-.33 (<.001)

0 또는 4에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된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삶의 질에 차이를 보인 변수와 상관관계 분석에서 우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요인을 회귀식에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이분변수는 더미변수화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요인을 확인한 결과, 결혼생활만족도(t=-8.84, p<.001), 월평균수입(t=-7.48, p<.001), 문화적응 스트레스(t=6.41, p<.001), 결혼 후 한국생활적응에 도움을 준 사람이나 단체(t=3.20, p=.002)와 사회적 지지(t=3.14, p=.002)의 예측설명력은 84.6%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회귀모형은 유의하였다(F=138.04, p<.001).

논 의

본 연구는 한국남성과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하여 부산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생활 초기적응 단계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우울 정도를 파악하고 위 변수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대상자의 출신국가로는 베트남과 중국의 비율이 69.1%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전국 결혼이주여성의 국적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Statistics Korea, 2011)에서 중국과 베트남의 비율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과 유사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하면서 초기적응 단계의 결혼이주여성 우울의 감소 및 예방하기 위한 간호학적인 중재방안과 전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대상자의 출신국별에 따라 우울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결과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중국 순으로 우울 점수가 높게 나왔다. Cha와 Kim (2008)의 연구에서 베트남이 중국보다 우울 점수가 높게 나와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이는 문화적 정체성이 높은 베트남의 경우 정신건강에는 불리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Yang 등(2009)의 연구에서는 중국, 필리핀, 기타 국가 순으로 우울증상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Lim, Oh와 Han (2009)의 연구에서는 출신국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결혼한 지 12개월에서 24개월 이하인 결혼이주여성보다 12개월 이하인 결혼이주여성에서 우울 점

Table 4. Predictors on Depression (*N*=126)

Variables	B	SE	β	t	*p*	Collinearity statistics	
						Tolerance	VIF
Marital life satisfaction	-2.62	0.29	-.43	-8.84	< .001	.51	1.94
Family monthly income	-2.75	0.36	-.33	-7.48	< .001	.60	1.64
Acculturation stress	0.36	0.05	.33	6.41	< .001	.46	2.16
Primary support	0.16	0.05	.11	3.20	.002	.97	1.02
Social support	0.06	0.02	.11	3.14	.002	.87	1.14
Adj. R^2=.84, F=138.04, p< .001							

수가 더 높게 나왔다. 이는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우울정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Kim, 2008; Yang & Kim, 2007)와는 일치한다. 하지만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결혼 한지 24개월에서 36개월 이하인 결혼이주여성보다 12개월에서 24개월 미만인 결혼이주여성에서 우울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났다. 또한 Kim (2008)의 연구에서는 결혼기간이 2~5년 사이일 때 우울의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임신, 출산의 기쁨 혹은 자녀양육과 같은 이중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는 시기로 우울이나 정신건강에 더 취약하거나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결혼 시기에 따른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을 비교한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상자의 교육수준에 따른 우울의 정도는 중학교 졸업 21.5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 졸업 17.99점, 대학교 졸업 이상 17.15점으로 낮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적 건강과 교육수준의 연구에서 낮은 교육수준이 우울에 더 유의미하였다는 Yang과 Kim (2007)과 Kim (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높은 학력수준이 정착지의 문화적응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기독교를 믿는 경우가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 우울점수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Hong과 Chae (2006)는 종교를 가진 여성이 종교의 힘으로 한국생활을 더 잘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종교 활동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 정착과정에서 큰 힘이 되며 이주여성들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게 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지적인 힘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종교기관보다 교회의 접근 용이성과 교회 중심의 다문화가정 지원 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결혼 후 한국생활적응에 도움을 준 지지체계에 따른 우울점수를 살펴보면 종교단체가 15.50점, 남편 18.01점으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지역서비스 24.00점보다 우울점수가 낮게 나왔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결혼 후 한국생활적응에 도움을 준 사람이나 단체에서 남편이 73.8%로 가장 많았으며 Hyun과 Kim (2012)의 연구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 중 남편지지에 대한 지각이 가장 높았다. 즉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남편이 중요한 지지체계가 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으며 또한 종교단체가 종교적 기능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착 및 교류의 장으로서의 지역사회 공공기관보다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 가족의 월평균소득에 따라 우울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월평균소득과 관련된 우울의 정도는 결혼이주여성의 국제결혼동기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자신의 본국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기대를 갖고 결혼을 결심하나 결혼을 하여 현실적인 모습을 보고 실망한다고 하였다(Seol, 2005). 즉, 이들에게 경제적인 여유에 많이 부응하지 못한 한국에서의 경제적 상황은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우울의 정도를 높이는 요인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주여성에게서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에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우울점수가 더 높았는데 이는 언어적, 문화적 적응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한 이주여성에게는 시부모와 함께 산다는 것은 큰 부담이며 이는 시부모와의 갈등의 기폭제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시부모와 함께 살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의 형성' 차원에서 출산과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개인에게 보람과 기쁨을 주며(Kim, 2010) 외국인 아내에게 있어서 부모가 된다는 기쁨이 우울을 낮추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한국어 실력은 5점 중 평균 2.63점, 남편의 부인나라의 언어실력은 1.79점으로 이는 Yoo, Kim과 Kim (2012)의 연구에서 한국어 실력은 평균 3.25점으로 이는

본 연구대상자의 결혼기간이 1.88년으로 Yoo 등의 대상자보다 결혼기간이 짧아서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 또한 남편의 부인나라 언어실력은 Yoo 등에서 1.85점으로 두 연구결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남편과의 대화 시 주로 쓰는 언어가 한국어이므로 결혼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부인나라의 언어실력은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Kim (2010)의 연구에서 한국어 수준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연구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89.45점으로 그 정도는 높지 않았는데, 이는 서울 지역 결혼이민여성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보통 이하로 낮았다고 보고한 Yang 등(2009)의 연구와 일치하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는 Yang 등의 대상자보다 국내 거주기간이 길지 않아 언어 장벽 등으로 주류사회와의 보다 직접적인 접촉이 제한적인 점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결혼기간이 3년 미만인 이주여성의 우울의 평균점수는 18.89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Yang 등(2009)의 연구에서 14.19점, Yang과 Kim (2007)의 연구에서는 15.90점으로 본 연구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Yang 등(2009)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평균 혼인기간이 4.91년, Yang과 Kim (2007)의 연구에서는 3.57년으로 본 연구에서 혼인기간인 1.88년보다 길어 한국사회적응의 어려운 시기도 지났다는 점에서 본 연구보다 우울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12.7%의 결혼이주여성이 확정우울증을 보였으며, 이는 한국인의 평생우울증 발병률이 연구마다 상이하나 2.9%~5.6%로 보고됨을 볼 때(Cho et al., 2009) 한국인보다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57.1%가 가능우울증 이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울 측정도구가 연구마다 상이하여 이들 수치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우울증상을 경험한 20대 여성의 비율 16.6%보다 높은 것으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여성보다 더 많이 우울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Kim (2011)의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경증 우울증이 45.5%, Yang과 Kim (2007)의 연구에서 보통 이상의 우울증이 26.9%이라고 보고한 연구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83.7%가 결혼 후 1년 이내에 임신을 하고 결혼기간 3년 미만인 이주여성의 77.5%가 출산(Kim et al., 2008)을 한다고 보고한 연구에서처럼 이 기간은 결혼생활, 임신과 출산의 경험과 함께 한국생활 적응도 동시에 해야 함에 따라 우울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한국생활 적응단계부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에서는 적응의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언어와 문화차이로 인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울증에 대한 사정 및 진단도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벼운 우울증이나 심한 우울증을 보이는 집단을 위한 임상적 차원의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이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Hyun과 Kim (2012)의 연구와 Yang과 Kim (2007)의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를 본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r=.78, p<.001)는 20~40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Hyun과 Kim (2012)의 연구(r=.36, p<.001)와 20~50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Yang과 Kim (2007)의 연구(r=.52, p<.001)에서 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특히 한국생활 초기 적응단계의 결혼이주여성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가 밀접하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클수록 우울수준 즉, 정신건강상태가 악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적응초기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이는 Yang과 Kim (2007)의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를 본 결과와 유사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사회부적응은 정신건강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우울, 불안 등의 다양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나(Kim, 2011), 사회적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나 우울과 같은 심리건강에 대한 완충작용 및 우울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2007; Kim, 2011). 그러나 사회적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는 Lim, Oh와 Han (2009)의 선행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므로 한국생활 초기적응기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해 재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결혼생활만족도, 월평균수입, 문화적응 스트레스, 결혼 후 한국생활적응에 도움을 준 사람이나 단체와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설명력은 84.6%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본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결혼

생활만족도가 우울의 주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동일한 척도로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만족도를 조사한 연구가 거의 없어 직접비교하기가 어려우나, 본 연구결과는 Cha와 Kim (2008)은 결혼만족도가, Lim 등(2009)은 남편에 대한 만족도가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하지만 Yang과 Kim (2007)과 Lim 등(2009)의 연구에서는 우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 체계가 취약한 결혼이주 초기에는 가장 영향력 있고 든든한 남편과의 결혼생활만족이 큰 역할을 하며 이 요인에 따라 우울이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비롯한 여러 시설에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우리문화와 음식, 언어 등과 같은 우리나라에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만을 주로 교육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적응 프로그램에 부부가 함께 참여하도록 지지하여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만족도도 높이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면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이 향상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으로 인해 새롭게 이주하여 문화전환으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정착이나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된 지역사회 서비스가 필요하며 이때 남편 및 시댁식구와의 지지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생활 적응초기에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사회부적응은 정신건강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우울, 불안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Kim, 2010).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우울 정도를 확인하고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우울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건강관리 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 이론적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산·경남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보건소 및 종교단체 등에 등록된 결혼이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국내 거주기간별 우울에 영향을 주는 심층적 분석을 위한 충분한 대상자를 모집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지역분포를 확산하여 거주기간별 우울의 영향요인을 밝히는 연구를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연령층을 20대에서 중년여성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생활 초기적응기로 볼 수 있는 결혼기간 3년 미만의 결혼이주여성만을 대상으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생활 적응초기에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로, 본 연구결과 결혼 이주초기 여성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결혼생활만족도, 월평균수입, 문화적응 스트레스, 결혼 후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준 사람이나 단체와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생활 적응초기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우울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있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도록 한국문화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참여자 간 네트워크는 물론 지역사회 내 한국인 가정과 '이웃 맺기' 등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지지체계를 형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편의 적극적인 참여를 격려하는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및 남편의 직장시간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프로그램 참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을 완화시킬 수 있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불어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및 보건소에서 우울을 비롯한 정신건강을 사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가진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는 중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예방 및 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Cha, S. E., & Kim, D. S. (2008). The effect of social roles on depression of foreign wives in Korea: Focused on the difference among Japanese, Chinese and Vietnamese wives.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1*, 131-157.

Cho, M. J., Chang, S. M., Hahm, B. J., Chung, I. W., Bae, A., Lee, Y. M., et al. (2009).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major mental disorders among Korean adults: A 2006 National epidemiologic survey.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8*, 143-152.

Chun, K. M., Choi, S. J., & Yang, B. C. (2001). Integrated adaptation of CES-D in Korea.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6*, 59-76.

Chung, G. H., & Lim, J. Y. (2011). Comparison of marital satisfaction between immigrant wives and Korean wives of

Korean m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9*(5), 33-48.

Fenta, H., Hyman, I., & Noh, S. (2004). Determinants of depression among Ethiopian immigrants and refugees in Toronto.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2*, 363-372.

Hong, D. A. G., & Chae, O. H. (2006). Family life and conflicts of femal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5*, 729-741.

Huang, Y. C., & Mathers, N. J. (2008). Postnatal depression and the experience of South Asian marriage migrant women in Taiwan: Survey and semi-structured interview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5*, 924-931. http://dx.doi.org/10.1016/j.ijnurstu.2007.02.006

Hyun, K. J., & Kim, Y. S. (2012). The impact of acculturative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Direct and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7*, 653-677.

Kim, H. S. (2008).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4*, 248-256. http://dx.doi.org/10.4069/kjwhn.2008.14.4.248

Kim, H. S. (2011). Impacts of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on depression among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in Daegu and Kyungpook a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 188-198.

Kim, K. W. (2010). Pregnancy and childbirth experience of immigrant women in a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Korean Society Maternal Child Health, 14*, 133-144.

Kim, M. T., Han, H. R., Shin, H. S., Kim, B. K., & Lee, H. B. (2005). Factors associated with depression experience of immigrant populations: A study of Korean immigrants.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19*, 217-225. http://dx.doi.org/10.1016/j.apnu.2005.07.004

Kim, N. Y. (2007). *A study on life satisfaction about international marriage of women immigrants: Focus on social support and social particip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weon, B. S. (2009). The effects of Korean ability and self-esteem on acculturative stress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Focused on Vietnamese, Filipino, and Chinese women in Daegu.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1*(2), 5-32.

Lee, S. S., Park, J. S., Kim, P. S., & Kim, H. S. (2007). *A survey on marriage and delivery and policy direction in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Seoul: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Lee, Y. H., Shin, M. H., Kweon, S. S., Choi, S. W., Rhee, J. A., & Choi, J. S. (2008).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in an urban community.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33*, 303-315.

Lim, S. J., Oh, S. S., & Han, C. S. (2009). Predictors of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foreign wives through marriage migration. *The Korean Journal of Women Psychology, 14*, 515-528.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2006). *The reality of femal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tion and support policies for their health and social welfare of the Korean government.* Seoul: Author.

Mui, A. C., & Kang, S. (2006). Acculturation stress and depression among Asian American elders. *Social Work, 51*, 243-255.

Oh, S. H., & Park, G. H. (2007). Factors affecting immigrant's psychological health.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1*(4), 55-69.

Park, J. W. (1985).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support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 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Measures, 1*, 385-401.

Sandhu, S. D., & Asrabadi, R. B. (1994).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 435-448

Seol, D. H. (2005). *Foreign wives' life in Korea: Focusing on the policy of welfare and health.* Gwache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tatistics Korea. (2011). *Immigrant status 2010.* Retrieved March 28, 2013, from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430&bbs=INDX_001

Thanh, H. M. (2005). *A study on international marriages between Korea and Vietnam after 1992.*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Yang, J. H., Park, H. J., Kim, S. S., Kang, E. J., Byun, S. H., & Bang, J. S. (2012). Adaptation experience to family of immigrant women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42*, 36-47. http://dx.doi.org/10.4040/jkan.2012.42.1.36

Yang, O. K., & Kim, Y. S. (2007). A study on the effects of depressiveness among foreign wives through marriage migration. *Mental Health & Social Work, 26*, 79-110.

Yang, S. J., Kim. J. A., Kim, S. N., Choi, H. Y., Park, C. S., & Dan, H. J. (2009). *Health concept, health status and health service utilization of marital immigrant women in urban and rural areas in Korea.* Seoul: Management Center for Health Promotion.

Yoo, E. K., Kim, H. J., & Kim, M. (2012).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in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2*, 171-180. http://dx.doi.org/10.4040/jkan.2012.42.2.171

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In going over the depression study targeted to immigrant women,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depression based on length of marriage was found. The marriage periods that showed the highest depression were reported as less than one year, less than three years or between 2-5 years.

■ What this paper adds?

Results indicate that marital life satisfaction, monthly income, acculturative stress, household and primary support, and social support ar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for married immigrant women.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Provision of community services associated with settlement and stress management for married immigrant women in the initial adjustment to Korean life should encourage participation together with husband/family to maintain the supportive relationship of their husbands and families-in-law.